

# 개국 5주년 공영쇼핑, 1조·100억... 사상 첫 흑자 도전

(취급액·흑자)



최창희 대표, 5주년 성과·계획 발표  
상반기 취급액 4545억 기록 '순항'  
연 매출 500억... 현실화 총력  
모바일라이브커머스 내년 시작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주년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공영쇼핑

공영쇼핑이 개국 5주년을 맞은 올해 '취급액 1조·흑자 100억' 도전에 나섰다.

아울러 ▲판매수수료·송출수수료 현실화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사업 추진 ▲직매입 100% 실현 ▲디지털 체제 전환 가속화 ▲단독 사옥 건립 추진 등 '미래 5년 계획'도 밝혔다.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국 5주년 성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공영쇼핑은 코로나19의 여파속에서도 1~6월 사이에 취급액

4545억원과 76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순항하고 있다"면서 "이런 추세로 하반기에 5000억원 이상의 취급액을 올린다면 올해 1조원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급액은 TV홈쇼핑에서 실제 팔려 나간 제품의 액수를 합한 것으로 여기

에 판매수수료를 곱하면 매출액이 된다. 공영쇼핑의 수수료율은 20.7%다.

'중소기업·농수산물 100% 판매'를 미션으로 2015년 개국한 공영쇼핑은 지난해까지 415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공적 성격의 TV홈쇼핑으로 판매 수수료가 다른 채널에 비해 낮고, 채널 경쟁 심화로 인한 높은 송출 수수료 등 한계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부터 월별 흑자로 돌아서더니 12월까지 55억원의 이익을 거두며 연간 기준으로는 적자폭이 -44억원까지 줄었다.

남은 하반기까지 장사를 잘 하면 개국 5주년을 맞은 올해에 '흑자 원년'을 기록하는 셈이다.

최 대표는 "올해 기대하고 있는 '취급액 1조'는 큰 의미가 있다. 이는 고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이고, 고객 증가는 곧 매출 신장으로 이어지는 등 공영쇼핑이 선순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로 3년의 임기 가운데 2년째를 보내고 있는 최 대표는 미래 방향도 함

께 제시했다.

그는 "송출료는 매년 늘어 연간 500억원 가량을 쓰고 있다. 송출수수료 현실화가 시급하다.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공영쇼핑을 의무송출 채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판매수수료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고, 이는 곧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모색하고 있는 신사옥 건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공영쇼핑은 매년 50억원 가량의 임대료를 건물주에 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전원 공급 문제로 방송사가 난 이후 사옥 건립 필요성이 급부상한 만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사옥 건립 계획을 수립해나간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사옥 문제를 내임기 동안에 무리하게 추진할 욕심은 없다"면서 "어떤 형태로 디자인해야 미래에 걸맞는 바람직한 사옥이 될지를 먼저 고민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영쇼핑은 내년 1월1일부터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도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품기획과 방송제작을 1명이 담당하는 MPD제도도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또 공격적인 마케팅과 판매를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고 콜센터 디지털화, 스마트컨텐츠 등도 병행해나가기로 했다.

최 대표는 "TV홈쇼핑 대부분은 업체에 재고부담을 떠넘기는 위·수탁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상생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공영쇼핑은 매년 직매입 비율을 10%씩 늘려 '직매입 100%'를 실현해 중소기업들의 재고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신제품 론칭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과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공영쇼핑이 국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는 쇼핑 엔터테인먼트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중기부, 국민과 예비유니콘 기업 15곳 선발

66곳 접수... 최종평가 30곳 추려  
선정기업에 특별보증 최대 100억

중소벤처기업부가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대상기업 15곳을 국민심사단 등과 함께 뽑는다.

중기부는 국민과 함께 선정하는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최종평가를 10일에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최종으로 뽑힐 15개 기업에는 기술보증기금이 최대 100억원까지 특별보증한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벤처4대강국 실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지난 5월 접수 마감한 결과 66개사가 신청하는 등 관심이 뜨거웠다.

앞서 중기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두 달여에 걸쳐 1차 서류평가와 2차 기술평가 및 3차 심의위원회를 진행해 최종평가에 참여할 30개 기업을 주렸다.

최종평가 대상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ICT) 및 데이터·네트워크·에이아이(DNA)기반의 플랫폼 분야 혁신기업이 12곳(40%)으로 다수였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10곳(33.3%), 일반 제조업 분야 5곳(16.7%) 등이었다.

대상기업들의 평균 투자금액은 262억원으로, 200억원 이상을 투자유치한 기업이 1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300억원을 넘어선 기업도 8곳이었다.

또한, 최종평가 대상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성 평가 BBB등급 이상인 기업이 56.7%를 차지할 정도로

우수한 곳이 많았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각광받고 있는 비대면 기업도 21곳으로 상당수였다.

최종 평가에선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 ▲특별보증 지원 필요성 및 제도취지 부합성 ▲자금규모 및 활용 적정성 ▲사회환원·공헌 가능성을 심사한다. 또한,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업별 발표와 질의 및 응답 시간을 충분히 배정하기 위해 3개 분과로 나눠 진행한다. 특히 심사단은 국내 유명벤처캐피탈(VC) 대표와 투자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단 15명과 크래프톤의 장 장병규 국민심사단장 등 60명의 국민심사단이 함께해 기술의 혁신성과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평가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 일자리 창출기업 정책자금 대출이자 환급

중진공, 이달말까지 환급 접수

경북 김천에 있는 중소기업 골드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이자 4600만원을 환급받았다.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후 직원 8명을 새로 채용하며 일자리 창출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이후 골드팩은 5명을 더 채용하기도 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거나 수출 성과가 좋은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 이자를 아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일자

리·수출 성과창출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고용과 수출성장을 창출한 기업이다. 고용 창출 환급기준은 신규 고용 1인당 대출금액의 0.2%p이고 수출성과 환급기준은 수출 실적에 따라 0.2~0.4%p 수준이다. 환급은 1년간 납입한 이자금액내에서 가능하다.

고용창출 인정 기준은 대출 후 3개월까지 직원을 채용하고 1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된다. 수출성과는 실적에 따라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으로 나눠 적용한다. /김승호 기자

## 정수기+인덕션 '조리정수기' 인기

하우스룩, 누적판매 1만대 돌파

하우스룩 조리정수기가 본격적으로 판매량을 확대하고 있다.

하우스룩은 조리정수기 누적 판매 1만대를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2016년 8월 처음 출시된지 4년여만이다.

조리정수기는 국내에서 구내 식당을 중심으로 보급되며, 해외 수출까지 늘려왔다. 지난 3월 기준 설치 장소만 3000개소를 돌파했으며, 최근에는 OEM 구매와 함께 개인 구매도 늘어나는 추세다.

조리정수기는 정수기와 인덕션을 결합한 제품으로 '국가대표 브랜드K'에도 선정된 바 있다. 코로나19로 '편리미엄' 가전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다, 정수기와 비교해 가격도 저렴해 1만대 판



조리정수기. /하우스룩

매 달성에 성공했다는 게 하우스룩 설명이다. 지난 5월 리뉴얼을 통해 화력을 30% 강화하는 '터보' 기능을 추가하기도 했다. /김재운 기자 juk@

## 중소 우수제품 한자리에 중기부, 오늘 마케팅페어

국내 중소기업들의 우수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마케팅 페어'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유망소비재의 종합전시와 판매 기획전인 '2020 대한민국 마케팅 페어'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마케팅 페어'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목동 행복안배화점과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한다.

주요 행사내용은 ▲행복안배화점과 현대백화점 야외광장 특별판매 기획전(목동) ▲로비 공간에 우수 중기제품 전시·체험·판매 및 한식 패밀리에세이(코엑스 B홀) ▲그립(Grip) 실시간 라이브 커머스, H몰·아임스타즈 특별판매 온라인 기획전 등이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오순영 한컴컴퓨터 CTO가 지난달 24일 서울시 양재 시hiba센터에서 2020 WAIC 강연을 녹화하고 있다. /한컴

## 오순영 한컴CTO, WAIC 2020 연사 참여

한글과컴퓨터(한컴)는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오순영 전무가 세계인공지능회의(WAIC)에 연사로 참여한다고 9일 밝혔다.

중국 상하이시가 주최하고 올해 3회째를 맞는 'WAIC 2020'은 '지능적인 연결성, 나눌 수 없는 공동체'를 주제로 관련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550여명이 참여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올해는 한국을 비롯한 유럽, 이스라엘, 싱가포르에서 사전녹화한 후 9일부터 11

일까지 WAIC 홈페이지를 통해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순영 한컴 CTO는 국내 주요 지자체들이 한컴의 AI 콜센터 시스템인 '한컴 AI 체커25'를 활용해 어떻게 코로나19에 대응하고 극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내 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AI 콜센터 기술을 의료, 복지, 공공, 교육 분야로 확대해 나가는 미래 방향성도 제시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